

#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려야...”



정명운 |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장

세계화 확산에 따른 지구적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중 중국, 인도의 급속성장으로 인하여 아시아권 환경오염이 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심의 사전 예방적 환경 규제로서 새로운 무역장벽인 생산제품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인 로테르담 협약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생산 및 사용금지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 2004년에 발효 되었으며, REACH(신화학물질 관리제도), RoHS(유럽 전기·전자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WEEE(유럽 전기·전자 폐기물 지침) 협약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 왔으며, 이로 인한 해외 공급사로부터 우리의 수출 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지구 곳곳에서는 대홍수, 가뭄, 폭설 등 기상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산림파괴, 사막화 현상 등으로 매년 열대 우림 생물의 0.5% 정도가 서식지 파괴로 멸종하고 있으며, 2100년경에는 전체 생물의 33%가 멸종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속에서 우리나라 환경지표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6위, 인당 에너지 공급량 13위, 인당 폐기물 배출량 24위, 인당 물 소비량 14위이며, 2005년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지속성 가능지수는 146개국 중에서 122위를 차지했으며,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OECD 31개국중 최악 수준이며, 선진국형 오염도

(오존 등)가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은 높은 인구밀도, 집약적 토지이용, 도시 및 수도권 집중,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부하가 높은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공급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국내에서 또한 금융권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환경단체의 개발이나 보전이나 하는 논쟁 또한 뜨겁고, 우리의 이웃주민들도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대기 TMS실시, 대기환경규제가 2005년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고, 또한 수질오염 총량 제도의 시행 및 악취방지법 강화에 이어 내년부터 수질 TMS 또한 시행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 중 일부 항목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된 규제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계속 환경규제를 강화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향후에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하고, 기업은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고 환경운동단체는 생산적 비판을 통하여 환경정의가 구현되게 하며, 국민은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환경이 제대로 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